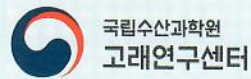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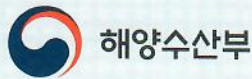


해양동물 구조 신고 가이드



구조 요청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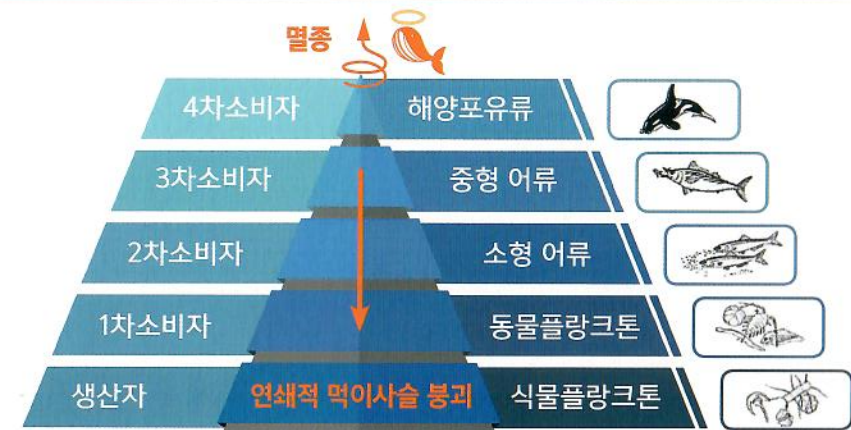


해양보호생물이란?

다에서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생태계법'에 의해 정하여 관리하는 종 (해양포유류 포함 총 80종)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정기준			지정근거	

해양생물을 왜 보전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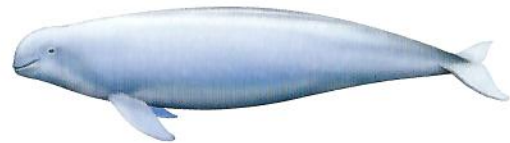


해양포유류가 멸종하면 연쇄적으로 먹이사슬 붕괴를 야기하고 생물다양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 인간은 바다로부터 물고기를 얻고 쓰레기를 되돌려줄 뿐이지만, 고래는 물고기를 얻는 만큼 바다에 영양과 균형을 선사해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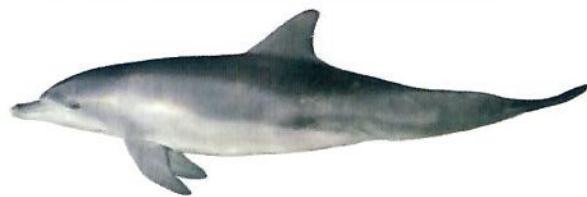
주목해야 할 해양보호생물

고래류(10종)



상괘이

다른 돌고래류와는 다르게 등지느러미가 없는 대신 등을 따라 긴 용기가 꼬리지느러미 앞까지 이어져 있다. 머리는 둥글며 몸 색깔은 태어났을 때 진회색이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밝은회색으로 바뀐다. 출생시 몸길이는 70cm 정도이며 최대 약 210cm까지 자란다.



남방큰돌고래

질은 회색의 등표면은 꼬리쪽으로 갈수록 벌어지며 복부색은 밝은 회색을 띤다. 머리는 둥글며 약간 용기된 형태이고, 주둥이는 도드라지게 돌출되며 아래턱은 위턱 끝부분보다 확장되어 있다. 가슴지느러미는 길고 그 끝이 뾰족하다. 몸길이는 2.6m, 몸무게 230kg까지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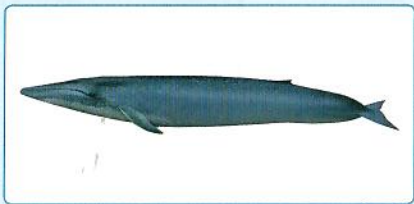


참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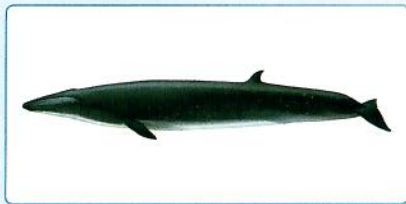
최대 몸길이 23m에 이르는 대형수염고래이다. 길고 날렵하게 생긴 유선형의 몸체 2/3 지점에 낮처럼 휘어진 등지느러미가 자리잡고 있다. 머리 오른쪽 아랫턱과 수염은 밝은 회색 또는 상아색인데 반해 왼쪽은 흑색으로 비대칭이다.

조목해야 할 해양보호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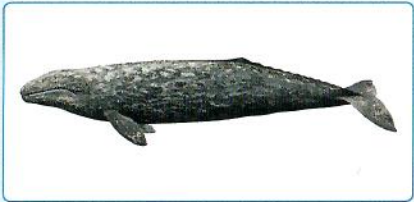
고래류(10종)



대왕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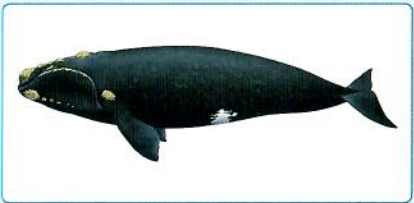
보리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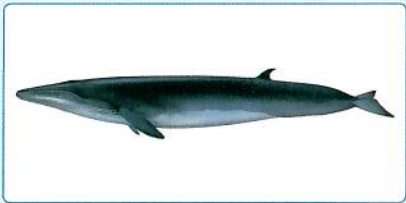
귀신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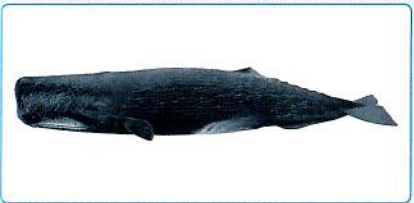
흑등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향고래

파충류(4종)



매부리바다거북

길쭉한 머리와 뾰족한 부리모양의 입을 가졌으며, 등딱지는 톱날같이 갈라져서 서로 겹쳐있다. 머리위에 2쌍의 비늘이 있고, 전반적으로 몸은 납작하다. 등갑길이는 최고 90cm에 달하는 중간 크기의 바다거북에 속한다.



장수거북

등딱지 길이 1.2~2.5m정도이며 지구상에 사는 거북류 중 가장 크다. 등딱지 표면은 각질편이 없는 두꺼운 가죽질 피부로 덮여 있으며 7줄의 세로줄이 튀어 나와있다. 배쪽에 5줄의 줄이 나있으며 앞, 뒷다리에 발톱이 없다. 어두운 갈색 바탕에 희미한 노랑무늬 체색을 띤다.



푸른바다거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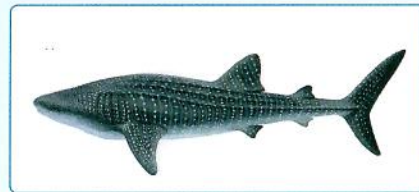
비교적 머리가 작고 등갑이 단단하며 그 모양은 난원형이거나 심장모양이다. 체색은 황록색에서 검은색으로 다양하다. 선단 부에는 두렷한 비늘이 있으며 납작한 물갈퀴모양의 발과 각 물갈퀴 위에는 한개의 발톱이 있다.



붉은바다거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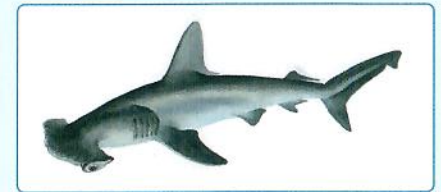
유난히 큰 머리를 지녔으며, 등갑은 하트모양이고 주로 붉은 색이다. 등갑의 뒷 가장자리는 톱니모양이며 좌우측면에 5쌍의 근갑편이 있고 머리 위에 5개의 비늘이 있다. 발의 모양은 납작한 물갈퀴 모양이며 두개의 발톱이 있다.

상어류(2종)



고래상어

상어의 몸길이가 18m에 이르며, 다른 상어류와 달리 입이 주둥이 끝부분에 있다. 등쪽은 회색, 푸른색 또는 갈색이며 배쪽은 흰색을 띤다. 턱에는 약 300열의 작은 이빨이 있으며 배 위로는 흰점과 열은 수직 줄무늬가 있다.



홍살귀상어

몸은 방추형이며 몸의 단면은 원통형이다. 머리가 망치처럼 양옆으로 확장되어 있고 머리 전면 가장자리의 중앙에 오목한 홈이 있다. 눈은 좌우로 확장된 머리의 양끝에 위치하며 양턱의 이빨끝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다.

스목해야 할 해양보호생물

기각류(6종)



점박이물범

몸길이 1.4~1.7m, 몸무게 82~123kg인 소형 물범이다. 체색은 일반적으로 엷은 은회색이나, 변이가 많으며 불규칙한 무늬의 점들이 산재해 있다. 주둥이는 비교적 짧고 수영이 있으며 피부는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다.



물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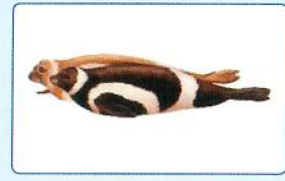
코끝은 짧고 뾰족한 모양을 지니며 수컷의 체색은 흑갈색, 암컷은 어두운 회색으로 배 부위가 밝은 회색 또는 밤색이다. 네다리를 지니고 있으며 몸집은 바다사자보다 작은 편이나, 지느러미는 상대적으로 길다.



큰바다사자

바다사자와 중 가장 큰 종으로 성체 수컷 평균 몸길이가 약 3.3m, 몸무게 1ton 이상이다. 대부분의 기각류와 달리 젖었을 때의 색깔은 더욱 옅어져 회백색으로 보이며 보통 가슴 부위의 빛깔이 더 짙다. 머리 앞부분은 넓고 평평하지만 중앙부는 높으며 송곳니가 크고 뾰족하다. 울음소리는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크고 우렁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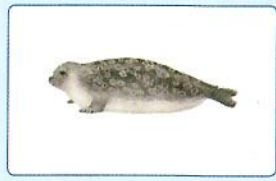
기각류(6종)



띠무늬물범



바다사자



고리무늬물범

무척추동물(34종)

갯게, 남방방게, 눈콩게, 달랑게, 두이빨사각게, 붉은발말뚱게, 의염통성게, 흰발농게, 기수갈고둥, 나팔고둥, 대추귀고둥, 금빛나팔돌산호, 둔한진총산호, 망상맴시산호, 미립이분지돌산호, 별혹산호, 깃산호, 유착나무돌산호, 잔가지나무돌산호, 착생깃산호, 측맴시산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흰수지맨드라미, 긴가지해송, 망해송, 빛자루해송, 실해송, 해송, 선침거미불가사리, 유사벌레불이말미잘, 흰이빨참갯지렁이

해조류(해초류 포함 7종)

거머리말, 게바다말, 삼나무말, 새우말, 수거머리말, 왕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조류(14종)

검은머리물떼새,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백로, 바다쇠오리, 바다오리, 바다제비, 뿔쇠오리, 쇠가마우지, 습새, 아비,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청다리도요사촌, 흰수염바다오리

해마류(3종)

가시해마, 복해마, 점해마

※ 사진출처 : 바다생태정보나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좌초된 해양동물을 발견할 경우 조치

해안가에서 좌초된 물개, 물범, 고래, 돌고래, 상괘이, 바다거북을 발견할 경우 조치사항

좌초된 해양동물이 바닷속에서 나와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안가에서 주로 발견되는 개체는 기력을 상실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개체가 대부분임. 발견한 동물이 아프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무리에서 혼자 떨어진 개체로 판단되는 경우

(출처:고래연구센터,롯데월드아쿠아리움)



물개 좌초



돌쇠고래 좌초



점박이물범 좌초



물범치료

[조치사항]

- 1 119나 인근 해양경찰서에 즉시 구조 요청을 한다.
- 2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이나 개와 같은 동물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 3 좌초된 개체를 무리해서 바다로 돌려보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 4 좌초된 개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용히 하고 놀라지 않도록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 5 지느러미나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동물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는다.

[고래류의 경우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조치]



고래류 분기공



젖은 수건으로 건조해지지 않도록 덮어준다

- 1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다음에 갑자기 움직일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동물을 굴러서 등이 위로 갈 수 있도록 한 다음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바닷물을 계속 끼얹어 준다.
- 2 물을 끼얹을 때 분기공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젖은 수건으로 덮을 때 분기공은 덮지 않도록 한다.
- 3 물리거나 다칠 수가 있으니 입을 만지거나 꼬리 근처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다.

흔획된 해양동물을 발견할 경우 조치

어구에 의해 흔획된 고래, 돌고래, 상괭이, 물개, 물범, 바다거북을 발견한 경우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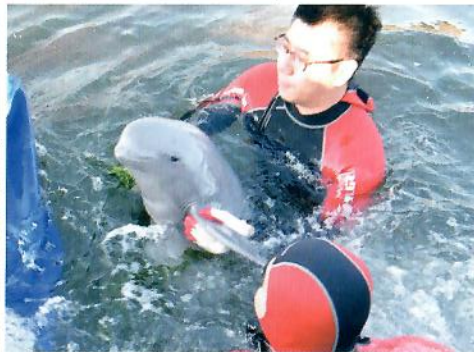
해양동물 자력으로 탈출이 어려운 경우 119나 인근 해양경찰서에 즉시 구조 요청을 한다.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다.

(출처:고래연구센터,롯데월드아쿠아리움)



긴수염고래 흔획



상괭이 구조



물개구조



물개치료

조심해야 할 사항

야생 해양동물과 인간, 가축은 서로에게 병원균을 옮기거나 받을 수 있고,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위험한 행동은 절대 금물

- 1 좌초된 동물은 건강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해서 바다로 돌려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 2 긴급 조치가 필요하여 좌초된 해양 동물에게 접근할 때는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만약 자신이 없을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 3 다른 사람이나 장비의 도움 없이 혼자서 무거운 동물을 옮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 4 동물을 만진 후에는 항상 손을 철저히 씻는다.
- 5 어린이는 특히 위험하므로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다.



신고 절차



해양보호생물 구조신고 어업인 인증

해양보호생물 구조신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에 부착 가능한 해양수산부 인증 「착한 선박」, 현판 및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함으로써 해양생물 보호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어업인은 우리나라 해양생물을 지켜낸다는 자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바다에 착한선박이 늘어날수록 해양생물들은 행복해집니다!

착한선박 인증 사례

연번	착한선박명	구조동물	신고일	구조장소	조치사항
1호	제1현성호	상괘이 1개체	'16.12.27.	거제 인근 해역	상태점검 후 방류
2호	302정해호	고래상어 1개체	'17.7.6.	여수 임포항	상태점검 및 치료 후 방류
3호	대오수산1호	고래상어 2개체	'17.9.13.	삼척 초곡항	즉시 방류
4호	제대성호	붉은바다거북 3개체	'17.11.25.	삼척 장호항	현장구조 후 치료이동
5호	북양호	고래상어 1개체	'18.9.12	강원고성	그물해제 및 방류
	⋮	⋮	⋮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을 지켜낼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처벌

 고래, 물범, 물개 등 해양포유동물을 무단 포획 및 유통시킨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큰바다사자 혼획
(출처: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상괘이 혼획
(출처:통영해경, 경남도민일보)



고래상어 혼획
(출처:동해해경, 경북매일)

해양동물 포획, 채취, 훼손



불법고래 포획·유통 전문조직단 검거
(출처:노컷뉴스)

해양동물 이식, 가공, 유통

해양보호생물 포획, 채취, 훼손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양보호생물 이식, 가공, 유통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내 손안에 해양생물의 모든 지식이 다 있다!



내 손안의 해양생물 지식IN 마린통!
"처음 보는 생물인 걸?" 전문가가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STEP.1
검색 ▶

NAVER

마린통

검색

STEP.3
사진 올리기 ▶

STEP.2
다운로드 ▶



구글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마린통" 검색



해양생물 정보를 얻고, 고래류 사체 신고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해양보호생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다생태정보나라는 우리바다의 많은 생태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해양생태통합정보시스템입니다.

www.ecosea.go.kr



전국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 연락처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을
살립니다!

